봉축행사 준비하는 사람들 ④ 서울경찰청불교회 연등만들기 현장

# "원만한 치안활동, 소원성취 기원"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에서 경찰불자들과 백락사 신도들이 연등을 정성껏 만들었다.

**홍천 백락사 신도들 점심시간 쪼개 동참한 경찰불자들과 답소하며 연등 다 의미 되새겨**

지난 8일 점심시간 경찰청 경승실에서 경찰불자들과 백락사 신도들이 연등을 정성껏 만들었다. 다 잘 될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들이 살면서 살아 지금 주어도 여러이 없겠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잘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요."

백락사 신도들 한에서 연등을 만들던 권찰불자 10여 명은 오후시가 다가오자 하나 둘 경승실을 빠져나갔다. 경승실을 장엄할 연등을 백락사 신도들에게 맡긴 채 각자 업무를 보러 가야 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몇 번이나 "미안해다"는 말을 전하며 자리를 떠났다.

손준예 경위는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경찰불자들도 바쁜 나날을 보내다보니 연등만들기 등 한 인원이 예년 보다 줄어든 것 같다"면서 "음식나눠 연등을 만들면서 가족들에 건강과 더불어 저를 비롯한 동료 경찰관 모두가 무사히 치안을 잘 유지할 수 있길 기원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각자 자녀와 손자손녀 자랑 등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시간이 훈상같이 지나갔다. 오후시가 다 되어가자 300개가 넘는 연등 형태틀이 여느덧 분홍색 연등들로 가득나 있었다. 성연스님은 "우리나라가 분단 현실다고 하지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잘 될 것"이라며 "정성껏 만든 연등이 이 곳 경승실을 밝히듯 각자 서원들이 환하게 밝을 발파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취임한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날 경승실을 찾아 급말불을 전달한 뒤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서울지방경찰청이 올한 해 동안 편안할 것 같다"며 경찰불자들과 백락사 신도들을 격려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교회는 오는 4월말 경찰청 청사 앞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을 여는데 이어 5월 초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대법회 를 열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광뜻을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되새길 예정이다.

박안태 기자 parkmae@buhgyo.com

# 물 부족 미얀마 주민에 물탱크 선물

**성형스님 문도회 지구촌공생회 통해 25000여명 식수 지원**

미얀 물이 부족한 미얀마 수재마을 주민들을 위해 성형스님문도회가 성명리 물탱크를 선물했다. 지구촌공생회는 "성형스님 문도회 후원으로 이곳에 10톤짜 물탱크를 건립했다"며 "시설을 이용할 주민 전체가 앞장서 공사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성형스님 문도회는 2012년 8월에 800만원을 후원했으며, 현지조사 등을 거쳐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올 2월 중순경 시설을 완공했다.

지구촌공생회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들은 식수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미얀마 중부부 지역인 만달레이주 수재마을은 연 평균 강수량이 10~20% 수준에 그치는 '건조지대(Dry Zone)'에 속한다. 특히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5개월 동안은 건기기간에는 25000여명 주민이 1인400여리터 규모의 물탱크 하나에 의존했다.

또 이용가능한 수자원인 댄은 마을에서 8km 떨어져 있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물통을 들고 걷거나 우마차로 이동해 물을 길어올 경우 왕복 6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건기때 고장이라도 나면 병들에 몇 시간을 걸어 물을 떠오느라 일사병 등 질병에도 쉽게 노출돼 있었다.

이번 시설 완공으로 주민들은 하루 20리터의 물을 쓸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은 "세계적인 공사를 통해 시설을 새로 NGO는 처음이다"며 "물을 저장해 놓수 있어 안심하고 이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백련문화재단 이사장 원택스님은 "성형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 사상을 선양하고자 기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국외 이웃을 돕고 실어도 반입을 돕는 실천에 솔기지 못하고 있다면 원력과 활동력에 활동하는 국제구호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0@buhgyo.com

# 세계문화 탐방 나의 유산 만들기 청소년 '지원'

**삼성사회봉사단 2억원 '아름다운동행' 에 전달**

삼성 사회봉사단이 지난 9일 아름다운동행에 나의유산만들기 사업기금 2억원을 전달했다.

삼성 사회봉사단이 지난 9일 한국불교문화사업과기념관에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에 2억원 기금을 전달했다.

삼성 사회봉사단의 기금 전달은 지난해 이어 매월 1천례 담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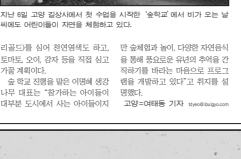
전라고 있는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탐방 & 나의유산만들기' 사업에 사용되다. 올해 나의유산만들기 사업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서울·경기 지역 22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00명으로, 13일 입대식에 이어 매월 1천례 담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무원장 자승스님은 "기부금액이 했되어 쓰이지 않도록 종교적 편향 없이 쓰도록 하겠다"고 강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 삼성봉사단 사장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엄태준 기자 ehr118@buhgyo.com

고양 길상사 '토요일 순 학교' 개설

# 사찰 뜰에 아이들 웃음꽃 활짝 핀다



지난 6일 고양 길상사에서 첫 수업을 시작한 '순학교' 에서 미가 오는 날씨에도 어린이들이 지연을 체험하고 있다.

고양 길상사(주지 보산스님)가 생태감성연구소 생그나무(대표 이영예)와 공동으로 '순 학교' 를 시작했다. 지난 6일 첫 수업을 시작한 순학교는 개학식 후 자연을 체험하고 만나고 게임을 하기고 즐거운 쪽도 관람했다. 신에서 들어오자는 팔목한 생그나무 꽃차를 마시며 맛으로 봄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순 학교가 진행되는 공간은 길상사 불타전과 뒤편의 전탑산이다. 길상사에서는 뒷밭에 목과 금전화에 꽃받음을 터트린 생그나무와 연분홍꽃을 피운 진달래도 만나고 게을을 이기고 올라온 쪽도 관찰했다. 신에서 들어오자는 팔목한 생그나무 꽃차를 마시며 맛으로 봄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순 학교가 진행되는 공간은 길상사 불타전과 뒤편의 전탑산이다. 길상사에서는 뒷밭에 목과 금전화에 꽃받음을 터트린 생그나무와 연분홍꽃을 피운 진달래도 만나고 게을을 이기고 올라온 쪽도 관찰했다.

리골리를 심어 천연염색도 하고, 토마토, 오이, 감자 등을 직접 심고 가꿀 계획이다.

순 학교 진행을 맡은 이명예 생그나무 대표는 "참가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이라 인 숲체험과 놀이, 다양한 자연음식을 통해 풍요로운 유년의 추억을 간직하게 해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양=이태동 기자 ltyang@buhgyo.com

# 더프라미스 '재능기부 프로젝트' 전개

**제주중앙 여중생들 재능기부로 동티모르 미얀마 교육 '후원'**

제주여 한 중학교 학생들이 지구들의 심각과 예술 재능을 활용해 동남아 지역 학생들을 위한 여행 봉사활동을 펼친다.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사장 법등스님)는 제주중앙여자중학교(교장 고영호)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재능기부 동아리 '사랑의 봇 날개' 프로젝트를 9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3 광주아시아문화만큼 초청작기인 홍주연 일러스트레이터와 중앙여중 동아리 학생들이 함께해서 지역에서 시작해 세계로 활동 폭을 넓힌다. 학생들은 홍주연 일러스트레이터와 함께 조별로 직접 디자인한 작품을 노트·파우치 등을 제품으로 제작해 판매한다.

수익금 전액은 더프라미스를 통해 동티모르의 미얀마의 남부된 지역의 교육받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 동티모르 아구에노 마을의 수구대주학 여성활뿐의 모임에도 후원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7월부터 5일 마동리 '사랑의 봇 날개' 프로젝트를 9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고영호 교장은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프라미스도 "아이들 스스로 재능을 발전시키고 후원으로 연결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프라미스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에 기업들의 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포스코건설은 미얀마의 '댕뱃공 학교 화장실 선물하기' 를 사내에 소개해 '좋장실 1칸 짓기' 를 목표로 한 직원이 매일 후원에 나 참여 중이다. 해피빈은 10월에 해당하는 한 기부자는 것으로 현재 400만원이 모였다. 앞서 '한계시' 에서 동티모르 식수지원 캠페인에 100만원을 해피빈을 통해 후원한 바 있다.

홍다영 기자


www.beomeo.kr

# 한반도평화기원 보살계 수계산림

귀의 삼보하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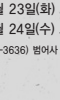
계사년 봄의 따라오른 햇살처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중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살계란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로 나누는데, 대승보살들이 받아 지켜야할 계율로써, 보살이 원심사항에서 구현하여 아뢰 삼천대위이기도 합니다.

금번 보살계는 구한말 성월스님께서 법어사를 선암대보산으로 명명한 바, 선암대보산으로서의 면목을 주춘하여 이곳에 금경총림으로 승격 후 맞이하는 첫 보살계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금경총림 범어사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하여 '한국전쟁 정전4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를 개최하기에 앞서 전쟁 없는 세상을 염원하며 아래와 같이 '한반도 평화기원 보살계 수계산림' 을 봉행하오니, 수계정진 하시어 이 땅에 평화가 기원되는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전계대화상
고산 혜원 대율사
(조계종 단일계단 전계대화상)



갈마아사리
불국 정관 대율사
(조계종 원로의원)

교수아사리
여천 부비 대율사
(전 조계종 교육원장)

- 입 재 : 불기2557(2013)년 4월 23일(화) 오전10시
- 회 향 : 불기2557(2013)년 4월 24일(수) 오후 3시
- 문의및접수 : 범어사 원주실 (051-508-3636) 범어사 각 말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